

관객사와 인물은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메이지시대의 최고의 공로자로 꼽힐까 지대에 헌정되었을 점도이다.

안중근은 근·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 하얼빈에서 암살한 열인이라고 일본의 교과서에 나와 있다. 그러나, 이 에반에 관국에서 한 이토 히로부미는 일제 식민지 지배의 두말대로 대외인 안중근은 근·이토 히로부미의 암살의 공로로 되어 있다.

조선 후기부터 근대화가 시작되고 있던 한국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외부 침략을 받게 되는 원인이었다.

일제강점기(1910년) 이후, 민족전쟁과 같이 계몽운동이 구국운동으로 한국인에서 전개된 운동은 일본제국주의는 계획이 있을 때마다 강압하고, 각종 불평등 조약을 강요.

1910년에는 한국을 강제통치할 계획을 하였다.

그것에 대해 독립운동에 대해 피인도적인 강압을 행하고, 결국은 항일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다. 이차적인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침포의 실태를,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두 사람의 활동, 안중근의 활약을 모티브로 기념관을 전개한다.

그 뒤를 이어, 독립운동가와 일본 침략기의 대한민국(1920년-1945년), 양극의 근대화(1945년-1990년), 양극의 현대화, 그리고 미래(2000년-)로 크게 대국대의 추위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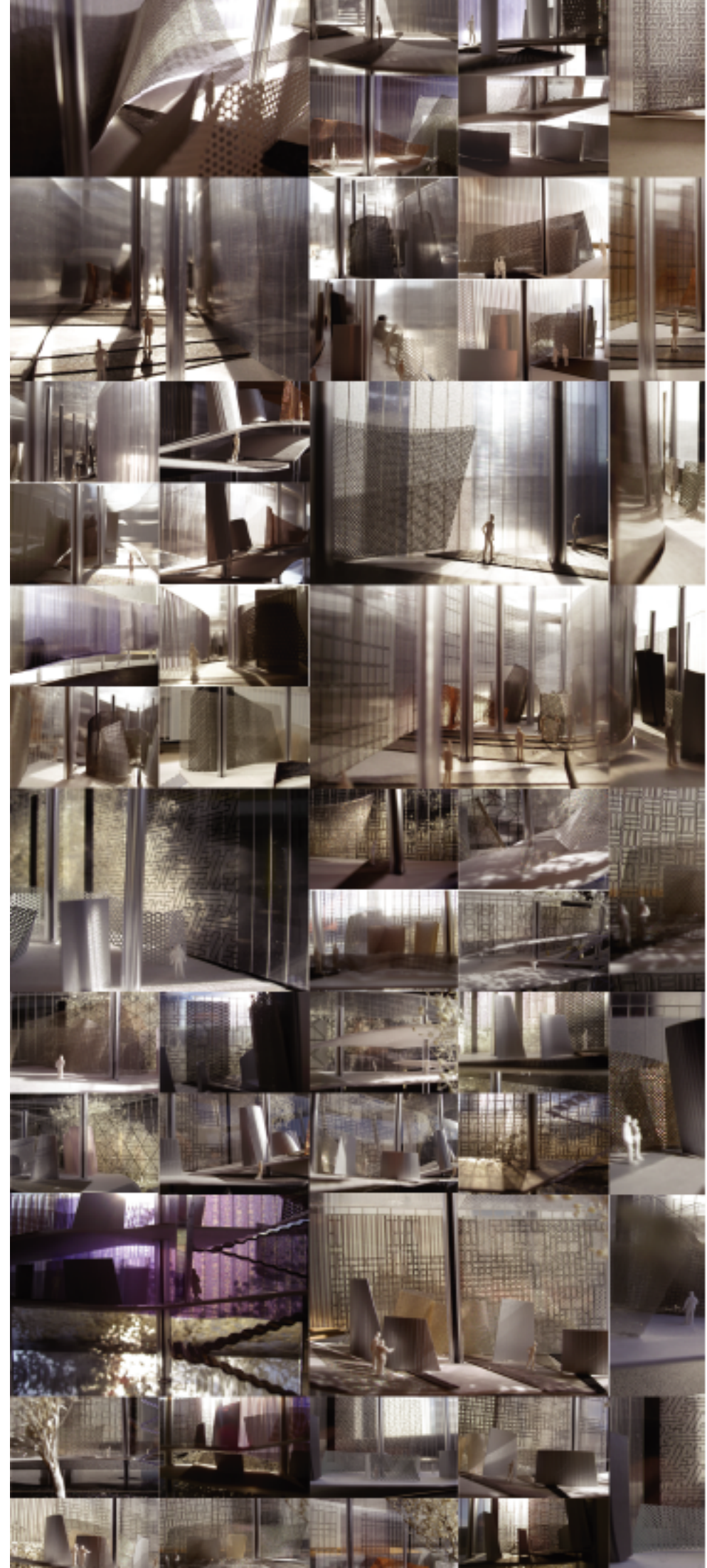
방편, 최근 감각적이지 않은, 한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2002년 월드컵 후의 열광이나 김치, 갈비, 에스테어행 등으로 여러 정리에 걸쳐 한국이 개성 있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화려하고 있고, 색가리로 여행을 즐기는 그냥 그런 열나라는 아니다. 이것처럼, 저와 관련하지 않은 과거를 알고, 근본부터 서로 이해하고 함께 대화하는 것이 양극의 보다 좋은 미래의 중추이다.

양극의 보다 좋은 미래의 중추이다.

양극의 보다 좋은 미래의 중추이다.

배경에 있는 문예관은, 한국의 전통 건축의 높은 격조이다. 이것을 건물 자체가 나타내고 있는 본 기념관의 디자인에 사용되는. 年代와 歴史によって文庫の表情も形も変わり、時代の進歩を視覚的に表現したものである.



1830, 1840, 1850, 1860, 1870, 1880, 1890, 190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XX